

교회소식

- 제직회 공고: 5월5일(주) 친교 후 분당.
안건:재정 보고, 당회 결의사항 보고 및 각 부서 사역 계획 보고.
각 부서장께서는 제직회 준비를 위해 예배후 2층 친교실에서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 Talent Market for **Sunday School**
오늘 12:30pm
Volnteer로 섬겨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Organic Smoothie를 각 \$3.00에 판매합니다. 수익금은 6월 VBS에 사용됩니다.
 - Princeton Volleyball Tournament for **Youth Group**
Date: 5/11 (Sat)
Location: Rockland State Park
Please come and spend time watching volleyball, cheering for the students, and enjoying a BBQ!

섬기는 사람들

4월 안내: 이향복 집사 / **5월:** 신미라 권사, 최은정 집사
다음 주 대표기도: 송성현 집사 (시 30)
이번 주 친교: 이현주 집사, 최경자 집사
다음 주 친교: 권혜순 집사, 구자금 목사

기도

“영혼이 잘 됨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심령에 들려 열매 맺는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교제와 양육이 풍성해지도록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거룩과 성령충만. 지혜와 은사. 강건함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 배 안 내		주 일 학 교	
English Service	10am / Sanctuary	유치부	12pm / 유치부실
주일 예배	12pm / 본당	유년부	12pm / 유년부실
금요 기도회	8pm / 본당	중·고등부	12pm / 소예배실
토요 새벽기도	6am / 본당		

성경공부 및 모임

성경공부	여성반	수 10am / 소회의실
(4월개강)	가족반	목 8pm / 대회의실
	남성반	토 7:30am / 소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소예배실
새가족 모임		주일에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고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2019년 표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사 43:19)

English Service

<10a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	“All Who Are Thirsty” ----- Together
*Call to Worship -----	Togeth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	Together
Apostle’s Creed -----	Together
Offering Prayer -----	Leader
Word of God -----	John 20:21-23 ----- Pastor Kim
Sermon -----	“As My Father Sent Me...” ----- Pastor Kim
Intercessory Prayer -----	Together
Closing Praise -----	“Cry In My Heart” ----- Together
*Benediction -----	Rev. Lee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	“찬양하라 내 영혼아” ----- 다함께
Opening Hymn	Blessed the Lord, O my soul
*경배와 찬양 -----	다함께
Worship & Praise	
*신앙고백 -----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	315장(통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 다함께
Hymn	My Jesus, I Love Thee
대표기도 -----	시편 150 ----- 손명식 집사
Prayer	Psalm 150
찬양 -----	“그의 빛 안에 살면” ----- 세광 찬양대
Anthem	Sekwang Choir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시편 1 ----- 인도자
Word of God	Psalm 1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s	
설교 -----	“시냇가에서” ----- 이민영 목사
Sermon	
*찬송 -----	459장(통514장) “누가 주를 따라” ----- 다함께
Hymn	Who is on the Lord’s Side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주일 말씀

No One Could Have Expected 요한복음 20:1-18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무덤에 드신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토요일 저녁으로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향품을 들고 움직일 수 있게 되자 마리아는 날이 밝기도 전에 미처 못다치른 장례 절차를 위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여느 일요일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돌을 굴러 무덤을 막았고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이라도 섬기려고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았지만 아무도 이 날이 부활의 첫날일거라고는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빈 무덤을 보고 “믿었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마리아에게 빈 무덤은 예수님의 시신조차 잃어버린 더욱 끔찍한 사태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누구도 짐작할 수도, 바랄 수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엠마오 가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만나주시기 전까지는 부활은 소문이였을 뿐이고, 그들에게 현실은 주님의 시체조차 찾지 못하게 된 혼돈이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각자의 방법과 성격대로 당황하고, 꾸미고, 슬퍼하고, 짐작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제자들에게 자기가 아버지의 영광에 들 것을 알려주시고, 자기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관계,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실 것도 알지 못했고, 부활하신 후에도 무슨 일인지 몰랐던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부활의 생명과 영광을 우리도 얻을 수 있도록 만나주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여느 일요일이 아니고 새 창조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는 일을 “다 이루신 후”(창 2:1-2) 안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대속을 “다 마치신 후” 무덤에 들어 안식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은 이제 죄와 사망의 저주가 끝나고 새로운 창조의 첫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여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마리아의 슬픔을 여시고 기쁨으로 채우셨습니다. 두려워 공공 걸어잠근 문을 여시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다음 안식 후 첫날에는 의심으로 굳게 닫힌 도마의 마음 문을 여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토요일이 얼마나 오래 갈런지, 언제 끝날런지, 끝나기는 할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피면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날, 주님이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주셔서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의 문을 여셨습니다.

무덤 문을 여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절망과 회의의 문을 여시고, “언제까지...”하는 지친 마음에 “이제 시작되었으니...”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를 소망과 평화의 증인과 등불이 되게 하십니다.

Memo